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강력범죄 '기승'

최근 3년간 강·절도 등 9,600여건 발생 범죄연령 낮아지고 수법은 흉포화 추세

여름방학기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청소년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유흥비나 휴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드래끼리 어울려 다니며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범행 수법은 점차 흉포화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검거한 청소년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5,345명에 달한다. 연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863명, 2016년 1,658명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1,814명이 검거되면서 청소년범죄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전남경찰청도 같은 기간 폭력과 절도 혐의로 청소년 4,303명을 검거했다. 청소년 범죄는 주로 방학기간인 7~8월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광주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검

거한 5대 범죄자 5,345명 중 20%가량인 1,037명이 7~8월 에 검거됐고 전남경찰도 이 기간에 전체 검거건수의 18%에 달하는 802명을 붙잡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차량을 훔치거나 차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A군(18)을 구속하고, 공범인 청소년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에 동구 학동의 한 노상에 주차된 토스카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여수·담양 등지에서 총 6,000만 원 상당의 차량 7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 북부 경찰도 새벽 시간대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귀금속 83만원 상당을 훔친 김모군(17) 등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북구 한 노상에 주차된 김모씨(24)의 차량에서 현금 12만원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친구 사이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강력범죄가 집중되자 경찰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범죄발생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

르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범행 수법은 흉포화되는 추세여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만 10~14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교정)을 받는다.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일선경찰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범죄수법도 점차 흉포화되는 상황이다"면서 "청소년 범죄는 유독 여름철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예방차원에서 계도활동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24~35	순천	24~33	광양	23~33
나주	23~35	여수	24~31		
목포	24~32				

일출 05:48 일몰 19:27
월출 21:02 월몰 07:56

장성	22~34	흑산도	25~30
담양	22~34	구례	21~33
화순	23~34	곡성	24~32
영광	23~34	완도	25~32
함평	24~35	강진	23~32
무안	24~33	장흥	23~32
영암	23~33	해남	23~33
진도	24~33	고흥	23~32
신안	24~33	보성	21~33

목포	만조 03:55 16:00	여수	만조 10:35 15:39
	간조 09:55 21:10		간조 04:30 16:30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고백 거절 여성BJ에 전기충격

경찰,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여성 인터넷방송진행자(BJ)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남모씨(21)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15분경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24·여)목과 허리 부위에 전기충격기를 작동시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다.

남씨는 평소 즐겨보는 인터넷방송의 진행자인 A씨를 흠모했고, 문자 메시지로 마음을 표현했으나 거절당

하자 해코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사는 남씨는 미리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준비해 A씨 거주지인 광주 한 아파트까지 찾아가 집을 나서서 A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남씨는 범행도구로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고, 다시 A씨 집을 찾아가던 길에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112시스템에 긴급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집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남씨가 퇴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종찬 기자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촉구

금호타이어비정규직회는 16일 오전 금호타이어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노동자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태규 기자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재인가 정당”

광주지법, '무효' 주장 주민 청구 기각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박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재지정)한 사업시행자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토지 수용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총 10만5

천㎡ 사업 부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7만5,000㎡를 소유했으며, 토지소유자 총 56명 중 43명의 동의를 얻었다.공익성이 없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설치될 다양한 시설은 휴양에 중심을 두면서 오락까지도 즐길 수 있으므로 '휴양형유원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여행객이 찾아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담양군민과 주

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담양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의 사업 승인 무효 판결 이후 사업시행을 다시 지정하고 토지수용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는 등 행정 절차를 보완, 2개월 만인 9월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했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 추진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행정 절차를 보완해 다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정당하다고 담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

해도다시 항소해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토지반환과 건축물 철거 소송도 잇따라 제기한 상태여서 사업 재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 등이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1단계 전통놀이마당,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1단계 85%, 3단계 100%다.

2단계 상가, 음식점, 펜션은 이미 공사가 완료돼 운영 중이다.

2016년 7월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2년 넘게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나라 기자

귀갓길 여성 상대 강도짓 30대 검거

무안경찰서는 16일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임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0분경 무안군 무안을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A씨(29·여)를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흉기로 친구 찌른 30대 붙잡아

경찰,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여수경찰서는 16일 술자리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5)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여수시 선원동 원룸에서 집에 온 친구 B씨(35)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맥주병을 깨뜨려 B씨의 목을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밤부터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만취 상태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경찰은 술에 취해 원룸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곽재명 기자

민원·생활불편 제보
☎720-1050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숙모밀
강석우 나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엔
- 필수 단백질 효능 강화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자, 셀레늄(Se)
- 두뇌 구성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정, 올리고당

국산 전문콩 함유
Vegemil 베지밀
황기차 건강엔 5060 시니어두유
Soy Milk for Senior Citizens

두유액 91% (두유 7% 이상) 180ml (120kcal)

주 문 제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핑 트러스트 www.edaymall.com | 문의 | 고객센터 080-0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동부영양소 (03)930-9307, 북부영양소 (03)989-9382, 남부영양소 (03)921-5535, 강남영양소 (02)959-9599, 서부영양소 (03)559-2255, 안양영양소 (03)296-9388, ● 충청영양소 (042)221-8801, ● 전북영양소 (053)214-5773, ● 전남영양소 (062)241-5071, ● 경북영양소 (053)353-3441, ● 경남영양소 (055)211-5551, ● 광주영양소 (054)971-6321, ● 부산영양소 (051)904-8891